

정치 불신... 최악 투표율 고민

여야, 경선 일정 차질... 후보 알리기도 쉽지 않아 새정치, 배심원단 구성 난관 경선을 변경 움직일

세월호 참사 여파가 6·4 지방선거 판도를 뒤흔을 전망이다. 우선, 세월호 참사 여파는 사회적 충격과 함께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켜 투표율을 크게 저하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동안 지방선거 평균 투표율은 50% 중반을 기록했는데 이번에는 역대 최하인 40% 중반대에 그치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선거 투표율은 제1대에 68.4%, 2대 52.7%, 3대 48.8%, 4대 51.6%, 5대 54.5%를 기록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로 사회적 충격이 너무 큰 상황”이라며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이 크게 낮아질 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로 인해 여야의 경선 일정도 차질을 빚으면서 후보들에 대한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세월호 참사 여파에 따른 유권자들의 관심 저하로 경선이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세월호 참사 여파로 선거 운동이 사실상 제한되면서 후보들의 정책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묻지마 투표’가 현실화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 여파는 안철수 공동대표 측이 주장하고 있는 공론조사식 배심원제 경선에도 차질을 예고하고 있다.

사회적 충격과 국민적 추도 분위기 속에 후보 선정을 위한 배심원단 모으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역풍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앙당에서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 배심원단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크게 낮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 공천을 위해 최소 1000여명의 배심원단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와 노응래 사무총장, 양승조 선거관리위원장 등은 지난 22일 긴급 회의를 갖고 공론조사 배제에 대한 의견을 냈었다.

이와 함께 23일 열린 전국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공론조사 배심원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체육관에서 모여서 하는 투표(배심원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 광역단체장 공천률이 100% 여론조사로 이뤄지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당원 경선과 공론조사 배심원제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유일한 대안인 여론조사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양승조 최고위원은 22일 저녁 경기도지사 후보 대리인들에게 “여론조사+공론조사” 경선 틀에서 공론조사를 제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론조사 배제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다. 새정치민주연합 핵심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는 가장 침울한 분위기에서 치러질 전망이다”이라며 “투표를 저하하고 묻지마 투표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해피아’ 논란 휩싸인 해수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양수산부, 해수부 산하단체, 해운업계가 유착한 ‘해양 마피아(해피아)’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관료들의 광범위한 낙하산 인사로 업계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견제능력이 크게 약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해수부 출신의 경우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 14곳 중 11곳에서 기관장을 맡고 있다. 사진은 23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입구.

/연합뉴스

국회 ‘외양간 고치기’

새누리 ‘해피아 방지법안’ 만들고 교원위에선 ‘학생안전의 날’ 추진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23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일고 있는 일명 ‘해수부 마피아(해피아)’ 논란(광주일보 23일자 6면 보도)과 관련, 부실·비리를 부추길 소지가 큰 ‘관료 낙하산’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수부 관료 출신들이 해양 관련 산하·유관기관 핵심 보직을 독식하면서 배수지식 일처리로 최소한의 감시·감독과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이번 주 중 ‘해(海)피아’ 등의 방지를 위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사기업, 법무법인 등으로 한정된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공직유관단체(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및 정부나 지자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해운조합과 한국선급 모두 해수부 출신 공무원들이 이사장 등 핵심 보직을 맡고 있다”며 “원전 비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지도·점검기관과 산하·유관기관 간 인적 결합과 파주기를 일삼는 그릇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세월호 참사에서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 법안소위를 열어 학생이 참여하는 단체 활동에 앞서 안전대책 마련을 의무화하고 ‘학생안전의 날’(가칭)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하여령, 수련활동과 같은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할 경우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포함한 관리상태를 확인토록 했다.

교원위 관계자는 “애초 지난해 태안 해병대 사설캠프 사고 이후 유가족들과 사고일을 ‘학생안전의 날’로 정하기로 당국과 협의가 이뤄진 바 있으나, 최근 더욱 많은 희생자를 낸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만큼 날짜 지정은 유보했다”면서 “추후 태안사고 유가족들도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與도野도 “내각 총사퇴” 요구

설훈 의원 등 “예고된 官災” 여권내부 ‘전면개각’ 공감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향후 수습책으로 내각 총사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아직은 사고 수습에 주력해야 할 때라 내놓고 얘기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수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붓물처럼 터져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은 23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모든 국무위원이 함께 물러나면서 이 상황을 수습하는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설 의원은 “상황 수습 중이기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쩔지 모르겠지만 현 부총리도 박 대통령에게 그런 준비를 하도록 건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설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은 정부의 미흡한 재난안전 대응체계, 선박규제 완화 등을 거론하며 “이번 참사는 예고된 관재(官災)”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 같은 주장은 여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고위 관

계자는 “사고가 어느 정도 수습되면 내각이 모두 사표를 제출하고, 대통령이 선별적으로 수리하는 형태로 해서 전면적인 개각이 필요하다”며 “우선 책임지는 모습부터 보이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현오석 부총리 “진도군 예비비 적극 지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세월호 참사의 수습 대책과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안산시와 진도군에 대해 예비비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부 위원회에 출석, ‘여객선사고 재난대책 예산지원 관련 보고’를 통해 “법정부 대책본부와 별개로 기재부도 재해재단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재정지원에서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정부가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참담한 사고가 발생해 정말 송구스럽다”면서 “저를 포함한 공직자는 피해자 가족과 국민의 탄식과 슬픔, 분노를 평생의 회초리로 간직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신축원룸매매 (전대1분)

①전대상대1분(용봉지구코너)★

신축 4층 룬21개
(1층 상가2칸, 4층 고급주택)
엘리베이터 완비, 전면 대리석, 벽돌시공, 정남향
월수익 880만(1년 1억500만)
매가 12억(보이억 5억3) 수익율 12%

②전대정문 후문1분(신축4층룸12개)★

1층 점포, 4층 고급주택 월수익 450만 매가 8억 7천(보3천, 용 1억2천)

③나주 이상동 원룸★

룸 18개 월 550만 매가 4억3천(용1억2) 수익율 13%

④수원지구3층(85평)매가3억5천★

모아엘가 APT입주 하고위치(보3천 월190만 용2억5천)

⑤첨단지구상가매매2층(62평)매가1억7천★

오선사과 일대가 보충금2천 원90만 사무실 시설 완비(월 주민직접 사용가)

★쌍촌역 오피스텔 매매(임대형 투룸형은천역2분)★

원룸시절안비 올리모빌링 전자제품 신규교체
•원룸형(11평) 매가 3억3천(보 200, 월 27, 용1000)
•투룸형(15평) 매가 4천3천(보 300, 월 36, 용1500)
•투룸형(15평) 보충금 3백 월 36만(월세인주 가 올리모빌링 방문)
★세제매입시 총가 1억 2천(용400만) 실투자 600만(용400만) 1000만 수익율15%

(주)대신 ☎010-6670-9800 062)952-5584

나주혁신 토지매매

나주혁신중심도로 빛가람로코너

근생지역 D-9블럭
코너 273평
매가 27억(용 16억)
부영 APT 정문 맞은편 코너
최고위치, 국립전파원옆
신축5층기능(1층만 건축시 월수익 1350만원 1년 수익 1억6천 수월)
수익율13%

나주시산포면등수리 생산관리지역

(도로접 주역(신축)용 945평 매가 2억2천 (1년 500만 수익발생)

화정동 상가 토지 매매

5천세대 아파트 주변
한양아파트 코너 433㎡ (㎡당 150만원)
신축5층기능

010-6832-9700 062)952-5584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감정가이하

- 금매 광주은행본점 부근 대인동 대로변 649㎡(210)건물 522㎡(158)공시지가 11억6천 매도 11억
- 쌍촌역 인근고시원 대지 272㎡(87)건물 493㎡(149) 수익률 보충금 3천에 월 580천 연급생활에 적합 5억 2천
- 쌍촌동 치평중학교 부근 대지 386㎡(117) 건물 603㎡(183) 원룸과 투룸 19개 전세 1억3천 월500선 수익 5억2천
- 700만원에 이전해갈 생활주택부지 영암읍 도로점 1380㎡(417) 대출 1억2천 원룸 적합 700만원
- 대전시 건물 162㎡ 신고 18억선 매도 8억 8천
- 동구 대지 542㎡(164)건물 3968㎡(1200)18억 2천
- 동구 예식장 대지 1924(582)건물 3287㎡(994)요양병원 등도 적합 감정 47억 3천 매도 27억 3천
- 담양군 대덕면 고속도로점 관리지역 8553㎡(2587)평탄 한양 공장.창고등적합 대출 1억 6천 매도 2억 2500만원
- 주월동 소방도로점 3층주거지 611㎡(185)차량전입.사할 등적합 공시지가에 매도 2억 2천
- 시내 목욕탕과 여관등 대지 765㎡(231)건물 2529㎡(765) 감정 22억 대출없음 매도 13억
- 쌍촌역 4거리 내대지 377㎡(111)7억천
- 동구 대지 923㎡(280)건물 7589㎡(2296)요양시설 병원 등적합 감정 60억 은행 26억 매도 44억

임대. 투자.교환

- 쌍촌동 원룸 건물 대지 222㎡(67) 건물 330㎡(100) 운전역 1분거리 보충금 2천선 월 300선수익 매도가 3억 6천
- 진도군 고군면 벽파리 벽파항에서 약 2km 산 16860㎡(5100)사할.별장부지 등 부지에 적합 2700만원
- 쌍촌동 명지아파트부근 5층 원룸건물 대지 320㎡ 건물 479㎡ 보충금 1억선 월 600선수입 7억 천
- 신안동 상업지 333㎡원룸 등 적합 3억 2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시관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상가/건물

- ▶ 화정동 교원공제부근 1층상가 225㎡ 매 12억(보1.3억, 월600만 유망프렌치이즈 입점)
- ▶ 북구 신용동 유지원 건물 매매 23억
- ▶ 남구 진월동 예식장건물 매매 65억(병원, 요양병원, 교회 적합)
- ▶ 품암동 한의원 임대 보충금 3천 월 100만
- ▶ 봉선동 쌍용사거리 부근 미용실 임대 보7천 월315만

대지/전답

- ▶ 북구 용두동 1층주거지역 대지 1,990㎡ 매매 6억 6천
- ▶ 서구 쌍촌동 대로변 준주거지역 대지 661㎡ 매매 14억
- ▶ 광산구 대신동 계획관리지역 전 29,800㎡ 매매39억
- ▶ 남구 주월동 병원최적합 부지 2,290㎡ 매매54억
- ▶ 담양군 원산동 집주지 29,800㎡ 매매 16억
- ▶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계획관리 전 17,200㎡ 매매 5억 2천
-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전답 8,600㎡ 2억9천

기타

- ▶ 세하동 창고 1,590㎡(건234㎡) 매매 7.2억
- ▶ 영암 삼호중공업 인근 주유소 매 8억(용 5억)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수 매수 상담 형원
상무지구 우리들병원 ~ 세정아울렛 사이
☎ 010-5536-0382 062) 373-0382

저렴한 고급 별장

정남진 별장은?

접근성, 주변 환경, 천혜의 경관이
아울러 고급 수입 목재를 활용한
건축물로 남해안 최고의 별장!
광주에서 50분 거리에 소재한
정남진 별장은 위의 조건을 완벽히 갖춘 곳!

토지 4,900㎡
건물 245㎡
매가 협의

- ◆ 정남진 장흥, 득량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 선착장과 해수욕장, 바다낚시, 리조트 등 최고의 워터시설과 아름다운 명소에
- ◆ 캐나다산 수입 목재 건축물(100%)에 수입 철호 등 최고급 자재 및 완벽한 단열, 방음, 방습 및 내부부기 자동 배출 방식의 숨겨진 별장.
- ◆ 완벽한 보안시스템 구축.
- ◆ 정남진 별장은 전원주택이 아닙니다.

전화상담 사절.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 내방 바랍니다.
행운(구.대창)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송 창 석
011-642-7777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500만원정도
토지 가격 만도
7억5천만원정도
매매가격
8억8천만원
라멘조 총병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